

http://dx.doi.org/10.17703/JCCT.2023.9.6.795

JCCT 2023-11-94

## 캐나다군 여성인력 활용사례와 그 시사점

# A Case Study on the Use of Female Human Resources in the Canadian Military and Its Implications

김인찬\*, 김종훈\*\*, 심준학\*\*\*, 이강희\*\*\*\*, 홍명숙\*\*\*\*\*, 박상혁\*\*\*\*\*

In-Chan Kim\*, Jong-Hoon Kim\*\*, Jun-Hak Sim\*\*\*, Kang-Hee Lee\*\*\*\*\*,  
Myung-Sook Hong\*\*\*\*\*, Sang-Hyuk Park\*\*\*\*\*

**요약** 캐나다군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전쟁의 장기화로 나타난 지속적인 병력 부족으로 인해 모병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여성인력의 활용범위와 역할을 확장하였다. 최초 의료지원으로 시작한 여성인력의 활용은 여성부대 창설과 함께 육·해·공군의 전투지원 임무로 확대되며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이후 병력감축과 함께 여성부대가 해체되었고, 여성인력의 비중도 총원의 1.5%로 제한되었다. 국방부는 여성인력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캐나다 왕립 여성 지위 위원회의 권고를 점진적으로 수용하며 캐나다 군내 여성인력 역할 확대의 분기점을 맞는다. 캐나다 국방부는 여성인력에 대한 장기간의 전투실험, 관찰과 분석을 통해 전투병과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1991년 걸프전쟁과 2001년부터 시작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캐나다 여성인력이 남성과 동등한 수준의 전투 능력과 지휘 능력을 보여주며 여성인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증명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지속되는 출산율 감소로 인구절벽과 병력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캐나다군의 여성인력 활용의 역사와 현재의 모습을 통해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어** : 병력 부족, 여성인력, 복무 여건 개선, 역할 확대, 전투실험, 현대전

**Abstract** The Canadian military participated in World War I and felt the limitations of the recruitment system through the continuous shortage of troops caused by the prolonged war, therefore expanded the role and scope of female manpower. The use of female manpower, which began with medical support for the first time, increased its necessity and importance as medical support personnel were dispatched overseas and women's manpower was expanded to combat support missions for the Army, Navy, and Air Force. Since then, the proportion of female manpower has been limited to 1.5% of the total number of employees at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and the reduction of troops and the dismantling of the women's unit. In this situation, the Austrian Defence Force gradually accepts the recommendation of the Royal Canadian Women's Status Committee to improve the service conditions of women, marking a turning point in expanding the role of women in the Canadian military. The the Austrian Defence Force conducted long-term combat experiments to increase the proportion and role of female manpower, increasing reliability through observation and analysis to prove whether female manpower is suitable for combat troops. Korea also wants to draw implications for the future direction by comparing the history and current appearance of the Canadian military's use of female manpower with the Korean military at a time when the problem of a shortage of troops is emerging due to the recent decline in fertility and low birth rates.

**Key words** :Lack of troops, female manpower, improved service conditions, expanded roles, combat experiments, modern warfare

\*정회원, 육군21사단 참모장교 (제1저자)

\*\*정회원, 30기갑여단 기보대대장 (참여저자)

\*\*\*정회원, 육군대학 지상작전 교관 (참여저자)

\*\*\*\*정회원, 육군 1사단 15여단 포병대대 주임원사 (참여저자)

\*\*\*\*\*정회원, 육군 미래혁신연구센터 혁신촉진연구담당 (참여

저자)

\*\*\*\*\*정회원, 우석대학교 군사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3년 10월 5일, 수정완료일: 2023년 10월 25일

게재확정일: 2023년 11월 5일

Received: October 5, 2023 / Revised: October 25, 2023

Accepted: November 5, 2023

\*\*\*\*\*Corresponding Author: plbas@hanmail.net

Dept. of Military Science, WooSuk Univ, Korea

## I. 서론

“전쟁이라는 상황은 여성이 전투에 적합한가에 관한 논쟁을 펼칠 겨를을 주지 않는다.”는 김태산(2020)의 연구에서처럼 캐나다군 여성인력의 역할과 활용범위는 전쟁과 더불어 확장되어왔다.

캐나다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 이전까지는 별도의 국호 없이 ‘대영제국(The Great British, 이하 ‘영국’)’의 이름으로 참전했고, ‘캐나다’란 국호로는 처음 참여하는 전쟁이었다. 전쟁 초기 모병제를 유지했으나 계속된 영국의 요청으로 60만 명의 병력을 유럽 전선에 파병하면서(당시 캐나다 인구 총 800만 명) 병력부족을 겪었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징병제를 택하여 만 20세에서 만 45세의 남성을 징집했다.

하지만 전쟁의 장기화는 지속해서 병력 부족을 야기했고, 캐나다군은 여성인력의 역할과 범위를 확장했다. 참전한 여성들의 활약은 군과 사회에 깊은 영감을 주며 여성의 지휘 및 역할 확대의 계기가 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캐나다군의 여성인력 활용의 역사와 현재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II. 캐나다 군의 여성인력 활용 변천사

### 2.1 전쟁에서 여성인력의 활약

여성인력의 전쟁 참가는 최초에는 의료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885년 캐나다 북서부에 반란이 일어났을 때 정부가 파견한 진압군에 대한 의료지원을 시작으로 하여 1899년 2차 보어전쟁(Boer War, 1899~1902)에서는 의료지원을 위해 아프리카로 파병되어 영국군과 캐나다군을 진료했다. 보어전쟁은 여성인력의 첫 해외파병이다.

제 1차 세계대전 기간 약 2,800명이 유럽 전선에 파병되어 부상당한 군인을 돌보았고 약 40명이 적의 공격이나 전염병 등으로 희생되었다. 이들은 푸른색 유니폼을 입고 의료지원을 실시했는데 유럽에서는 “파랑새(Blue Birds)”라 불리며 전쟁에서 여성인력의 필요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캐나다군과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 및 역할 증대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전까지 캐나다 사회의 투표권은 남성에게 있었고, 파병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

로 1917년, 소수의 여성에게만(남편이 군인이거나 자녀가 군인인 여성) 투표권이 부여되었다. 하지만 전쟁에서 여성인력의 활약과 그 중요성이 확대되어 1918년, 비로소 모든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게 된다.



출처: <https://www.thecanadianencyclopedia.ca/en/article/women-and-war>

그림 1.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여성인력  
Figure 1. Status of U.S. Forces stationed abroad

물론 제1차 세계대전에서 여성인력은 ‘군을 지원하는 민간인’의 신분이었고 간호업무 이외 다른 역할은 허용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캐나다 군과 사회에 여성인력의 필요성을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캐나다 여성인력이 군을 지원하는 민간인이 아닌 ‘군인’으로서 참전한 첫 전쟁이었으며 여성인력만으로 구성된 육·해·공군의 부대가 창설되었고 그중 4,500여 명이 유럽 전선에 파병되었다.

간호 임무에 한정되었던 여성인력의 역할이 전투지원 임무까지 확대되었고 여성인력도 ‘전투복’을 입는 것이 허용되었다. 하지만 보직과 진급, 봉급에서는 여전히 동일 계급 남성들에 비해 열악한 대우를 받았다. 이는 전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근접전투를 벌이는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해줄 수 없다는 당시의 군과 사회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출처: <https://www.thecanadianencyclopedia.ca/en/article/women-and-war>

그림 2.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여성인력  
Figure 2. Status of U.S. Forces stationed abroad

캐나다 여성인력은 6·25전쟁에서도 대한민국에 파병되어 간호와 전투지원 임무를 수행했다. 연속된 전쟁에서 여성인력의 활약과 희생은 군과 사회에서 여성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2차 대전 당시 동일 계급 남성 대비 50% 수준이었던 여성인력의 봉급이 6·25전쟁 이후에는 80% 수준까지 상승했다는 점은 군과 사회가 여성인력의 중요성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1].

### 2.2 전쟁 이후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이후 캐나다는 병역제도에 대한 국민 투표를 했고 국민의 70% 이상이 징병제도에 반대하여 1946년부터 지금까지 모병제를 유지해오고 있다. 모병제는 그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병력감축으로 이어졌고 그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창설된 육·해·공군의 여성부대는 모두 해체되었다. 캐나다군의 모병 대상은 ‘남성’에 한정되었으나 전쟁 후 국민들의 ‘직업군인’에 대한 인식변화에 따라 지원율과 경쟁률이 점차 저하되었고 캐나다군은 병력 부족 현상을 극복할 방안을 마련해야 했다.

캐나다군은 무기체계의 첨단화로 병력 부족 현상을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여성은 남성보다 근력과 신체조건이 열등하여 근접전투를 수행하기 제한된다.’라는 기존 군대에서 통용되던 논리를 약화하며 여성인력이 군과 전투병과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1965년, 캐나다군은 모병의 대상을 ‘남성’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여성의 숫자는 총원의 1.5%(당시 캐나다군 병력 총 15만 명으로 여성인력은 2,250명으로 제한)로 제한했으며 기혼여성은 입대가 금지되었고 군 생활 도중 출산을 하게 되면 전역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며 캐나다 왕립 여성 지위 위원회(The Royal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는 군 여성인력의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아래의 5가지 사항을 국방부에 권고한다. 첫째, 입대기준을 남·여 동일하게 설정할 것. 둘째, 연금 혜택을 남·여 동일하게 설정할 것. 셋째,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에 여성의 입학 허용할 것. 넷째, 여성 비율을 총원의 1.5%로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전투지원병과 뿐만 아니라 전투병과도 여성들에게 개방할 것. 다섯째, 기혼여성의 입대 금지 규정과 현역 복무 중 출산할 경우 전역해야

하는 규정을 폐지할 것으로 권고하였으며, 1972년 캐나다 국방부는 위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남성에게만 개방되었던 직위와 병과를 개방하기 시작했고, 점진적 발전을 통해 1980년대 후반부터, 모든 군, 모든 병과, 모든 직위에서 여성에 대한 제한과 차별이 공식적으로 철폐되었다. 따라서 1972년부터 여성인력은 군 내에서 ‘최초’라는 수식어를 붙이며 그 영역을 확장해오고 있다 [2].

표 1. 캐나다군 여성인력 역할 확대의 주요 분기점

Table 1. Canadian Armed Force's Female Role Expansion

년도	내용
1979	-(사관학교 포함) 여성에게 개방되지 않았던 127개의 보직 중 81개가 개방됨.
1982	-(캐나다 인권 자유국)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법 시행
1987	-(캐나다 공군) 모든 병과와 보직 개방
1988	-(캐나다 육군) 포병 병과 개방
1989	-(캐나다 인권 자유국) 모든 병과와 보직을 개방할 것 권고

### 2.3 여성인력과 관련된 국방부의 전투실험

캐나다 군에서 여성인력의 전투병과 보직이 적절한가를 검증한 주요 전투실험 2가지와 그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실험은 캐나다 국방부에 의해 1979년부터 1985년까지 6년간 수행된 ‘비전통적 환경과 역할 안에서 여성의 군 복무(Service Women In Non-Traditional Environments and Roles)’에 대한 연구다.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여성인력을 배제해왔던 부대와 병과(북극에 위치한 통신소, 비(非)전투함, 인명구조 부대 등)에 여성인력을 보직시켜 실험을 진행했다. 6년간의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성인력이 현장에서 보여주는 실제 능력과 성과가 성별 통합(Gender Integration)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긍정적 성별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인력의 대표자를 장군이나 고위직에 진출시키며 ‘우리 군은 여성인력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홍보하는 관례적 방식보다는 제도변화에 대한 남성들의 저항, 리더들이 여성인력에 부여하는 역할의 적절성, 여성인력의 임신과 출산 문제, 동성애 문제, 부대 동료와의 성관계 문제, 여성과 남성의 선천적 차이에 따른 훈련의 방식 차별화 등을 다루는 실제적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실험은 여성인력의 군 참여 확대를 위한 첫 발걸음이었으며 여성인력이 남성으로만 구성된 조직에 진입했을 때 어떤 효과와 부작용이 있는지 6년간의 관찰과 분석을 통해 신뢰성을 높였다. 이를 계기로 여성에게 개방되지 않았던 병과와 보직이 일부 개방되었으며 1987년, ‘여성인력이 전투병과에 적합한가?’에 대한 실험의 실마리가 되었다.

두 번째 실험 역시 캐나다 국방부에 의해 1987년부터 수행되었다. 여성인력의 전투병과 보직이 부대의 전투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증명하기 위해 육군에서 10개의 전투부대(보병·포병·기갑부대)와 해군에서 4개의 전투부대(전함·잠수함부대)에 여성인력을 배치하였다. 실험의 목적은 혼성으로 구성된 부대가 기존의 단일 성별(남성)로 구성된 부대와 전투력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험 3년 차인 1989년, 캐나다 인권 자유국은 국방부에 전 병과와 전 부대에 여성의 보직 제한의 철폐와 함께 현재 시행 중인 “실험(Trial)”을 계속 유지하여 “제도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방부가 이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실험의 중단과 동시에 여성인력의 전투병과와 전투부대 보직에 대한 제한이 공식적으로 철폐되는 시점이 되었다[3], [4].

#### 2.4 현대전쟁에서 여성인력의 활약

지난, 2021년 기준 캐나다 군의 총병력은 8.5만 명 정도이며 여성인력은 1.27만 명으로 전체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 전투병과에 보직된 여성인력은 1,150명으로 전체 여성인력의 약 10%이다. 캐나다군은 무기체계의 첨단화, 무인화와 더불어 여성인력의 비율을 2026년까지 총병력의 25%(약 2.1만 명)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다. 이는 현대의 무기체계를 활용한 전쟁에서 여성인력의 활약이 돋보였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다.

1991년, 중동에서 벌어진 걸프전쟁(Gulf War)은 캐나다군의 여성인력이 간호나 전투지원 임무가 아닌 전투원(Combat Crew)으로서의 첫 파병이었다. 이들은 육·해·공군 전투부대에 배치되어 이라크에 대한 해상 및 공중 봉쇄 임무, 쿠웨이트에 대한 재건 임무를 수행하였다. 당시 NATO의 연합 공군 유럽 중부사령부(Allied Air Forces Central Europe in Germany)에서 정보장교 임무를 수행했던 Susan Beharriell 소령은 걸프전쟁은 “여성이 전투 현장에 적합한가?”라는 의문을

해소한 전쟁이라고 평가하며 여성인력의 활약을 치켜세웠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photo/?fbid=10159270870925663&set=a.186987155662>

그림 3. 걸프전쟁에서의 여성인력

Figure 3. Status of U.S. Forces stationed abroad

또한, 2001년부터 시작된 아프가니스탄 전쟁(War in Afghanistan)에 캐나다는 미국의 동맹국으로 참전하였다. 여성인력은 전투원으로 참전하여 또다시 그들의 능력을 증명하였다. Nichola Goddard 대위는 2006년 총격전으로 전사하여 캐나다 여성인력이 전투원으로 전사한 첫 사례가 되었다. 2010년, 여성 전투지휘관으로서 최초로 참전한 Eleanor Taylor 대위는 보병 중대장 임무를 수행하며 여성이 전투 능력뿐만 아니라 전투 지휘 능력에서도 남성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출처: <https://www.thecanadianencyclopedia.ca/en/article/nichola-goddard>

그림 4. 적과 교전 중 전사한 Nichola Goddard 대위

Figure 4. Status of U.S. Forces stationed abroad

결국, 현대전은 여성인력이 필요하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전 캐나다군 전투병과에서의 여성인력 비율은 4.6%에 불과했지만, 전쟁 중 전투병과에서 여성인력의 비율은 8.3%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은 전쟁에서

의 여성인력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자료이다[5], [6].

### III. 결론 및 시사점

캐나다의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 육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도출해보았다. 첫째 군 조직 내 여성인력의 적체적소 배치를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투실험을 진행해야 한다. 캐나다 국방부는 여성인력의 필요성을 검증하기 위해 6년의 실험을 진행했다. 우리도 지금까지는 여성인력의 양적 확대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질적 성장을 위해 전투실험 결과를 토대로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 인력들의 다양한 경험 축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캐나다군의 여성인력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간호, 전투지원, 전투, 평화유지 등의 다양한 역할을 경험하며 여러 방면에서 스스로를 증명했다. 우리도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여성인력이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캐나다의 사례를 통하여 양성평등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병영시설의 개선, 여성인력의 역할 확대에 대한 공청회 등을 통한 담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현재의 '횡단연구'에 그치고 있는 여성인력과 전투력 발휘에 대한 실험을 '종단연구'로 확장하여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미래의 안보 위협을 대비하는 거시적 국방전략은 결론이 쉽게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결론이 불편한 진실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멈출 수 없기에 이 연구가 건전한 담론을 형성하길 기대한다.

### References

- [1] Karen D. Davis, Women and Leadership in the Canadian Forces, Canadian Defence Academy Press publisher, 2007.
- [2] <https://www.canada.ca/en/news/archive/2010/12/women-canadian-forces-cf-.html>
- [3] Park, Rosemary (1986) Overview of the Social/Behavioural Science Evaluation of the 1979-1985 Canadian Forces Trial Employment of Servicewomen in Non-Traditional Environments and Roles, Research Report 86-2. Toronto: Canadian Forces Personnel Applied Research Unit.
- [4] Cheryl D. Lamerson, Monitoring the Recruitment of Women: A Working Plan. (Willowdale, Ontario: Canadian Forces Personnel Applied Research Unit, 1988).
- [5] <https://nationalpost.com/news/canada/women-filled-8-3-of-canadas-combat-positions-in-afghanistan-study>
- [6] <https://www.youtube.com/watch?v=CCknJrOYICU&t=962s>